

【마츠사카 패랭이꽃】 쇼와 27년(1952년) 미에 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

1830년경의 에도 시대 후기, 마츠사카 토노마치에 사는 기슈 대명의 가신·츠구마츠 에이치 씨가 패랭이꽃에 반하여 다년간에 걸쳐 재배하던 중, 돌연변이로 인해 《꽃잎이 깊게 갈라지고, 곱슬곱슬하며 길게 늘어진》 꽃을 발견하고 이를 육성·개량한 결과 현재의 마츠사카 패랭이꽃을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

개화시기는 5월 중·하순이며 꽃잎은 한 겹의 꽃잎이 5~6장이고, 길이가 긴 것은 15~20cm나 되어 곱슬곱슬하게 아래로 늘어진다. 꽃의 색깔은 흰색·분홍·주홍·연보라·연지·빨강 등이 있고, 단색일수록 좋은 상품으로 여긴다.

119대 코카쿠 천황은 이 꽃을 매우 애호하였다. 훗날, 교토에 있는 『호우쿄우지』에 하사되어, 현재까지 "고쇼 나데시코"라는 이름으로 재배·관상되고 있다.

【마츠사카 꽃 창포】 쇼와 27년(1952년) 미에 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

쇼와 45년(1970년) 미에 현의 "현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

1810년경의 에도 시대 후기, 마츠사카 토노마치에 사는 기슈 대명의 가신·요시이 사다고로 씨가 야생의 《들 창포》를 개량·육성하여 "이세노우라"라는 명화를 비롯하여 백 여종의 품종을 만들어 냈다.

개화시기는 6월 초·중순이며 꽃잎은 3장이고, 오글쭙글쭙하고 얇고 큰 꽃잎이 서로 겹치며 아래로 늘어진다. 꽃의 색깔은 전반적으로 밝은 것이 많고 개화 후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꽃 모양과 색채가 변화하면서 꽃의 생을 마감한다.

"에도 꽃 창포"·"히고 꽃 창포"와 비교해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운 꽃이다.

【마츠사카 국화】 쇼와 27년(1952년) 미에 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

마츠사카 국화에는 대륜 형과 중륜 형의 2가지 계통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세 국화"라고 하는 것은 《중륜 형》을 말한다.

중륜 국화는 교토의 "사가 국화"가 원종이며, 1412년경 이세의 지방관리였던 키타바타케 미즈마사 씨가 사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와서 배양한 결과 만들어졌다는 설 등이 있고, 1830년경, 에도 시대 후기, 마츠사카 신마치에 살던 국화애호가 키노시타 토하치 씨는 대륜 국화를 만들어 낸 후, 이 중륜 국화도 실생 재배에서 개량해 많은 품종을 만들어 냈다.

개화기는 11월 초·중순이며, 꽃잎은 길고, 꽃잎 끝이 찢어지고, 휘말리고, 갈라져있거나 꽃잎이 곱슬곱슬하고 아래로 늘어지는 등 변화가 다양하다.

꽃의 색깔은 흰색·노랑·주황·빨강 등이 있으며, 한 송이의 꽃이 홍·백으로 이색지게 피는 종도 있다.

마츠사카 국화는 "사가 국화"·"에도 국화"·"히고 국화"와 함께 오래 된 역사를 가진 고전 국화의 하나이다.